

유전자 돌연변이 고형암 한미약품, 항암 실마리 찾았다

'벨라라페닙' 효능 확인

항종양 임상1상 연구결과 발표 전이성 고형암 환자에 효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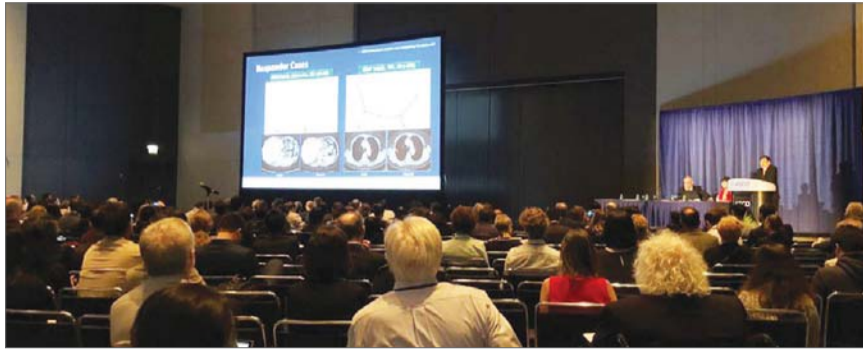
한미약품이 개발한 '벨라라페닙'이 다양한 유전자 돌연변이 고형암 임상에서 안정적인 항암효과를 나타냈다.

4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맥코믹 플레이스에서 열린 2019년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는 'BRAF, KRAS, NRAS 유전자 돌연변이를 지닌 전이성 고형암에서 항종양 효과를 확인한 임상 1상 결과'를 주제로 벨라라페닙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벨라라페닙은 로슈그룹 자회사인 제넨텍에 2016년 기술수출된 임상 단계 항암신약이다.

현재 BRAF 돌연변이 암에 반응하는 치료제는 출시돼 있지만, KRAS나 NRAS 돌연변이에 의한 암까지 타깃하는 치료제는 없다.

벨라라페닙은 세포 내 신호를 전달하는 미토겐 활성화 단백질 키나아제 중 하나인 RAF와 RAS를 억제하는 경구용 표적 항암제다. RAF와 RAS는 각각 3개의 아형(ARAF, BRAF, CRAF/HRAS, KRAS, NRAS)으로 이



서울아산병원 중앙내과 김태원 교수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맥코믹 플레이스에서 열린 2019년 미국임상종양학회에서 한미약품이 개발한 항암 신약 '벨라라페닙'의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뤄져 있는데, 이들에게서 변이가 발생하면 암이 유발된다. 특히 BRAF 및 KRAS, NRAS 돌연변이는 다양한 암 유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발표는 연구를 주도한 서울아산병원 중앙내과 김태원 교수가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7개 병원에서 BRAF, KRAS, NRAS 유전자 돌연변이를 지닌 고형암 환자 1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최대내약 용량에서의 안전성 및 항암효과가 확인됐다. 임상 연구는 RAFI-101, RAFI-102로 나눠져 진행됐다.

먼저, RAFI-101에서 전체 환자의 11% 및 NRAS 변이 환자군의 44%에서 종양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암의 진행 정도가 줄어드는, 부분 관해가 나타났다. RAFI-102 연구에서는 전체 환

자의 12%에서 부분 관해가 관찰됐다. 두 연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약물 관련 이상반응은 여드름성 피부염(37%), 발진·소양감(23%) 등이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벨라라페닙의 우수한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했다"며 "BRAF, KRAS, NRAS 유전자 돌연변이를 지닌 전이성 고형암 환자에서 항종양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권세창 사장은 "한미약품은 언택트니즈가 높은 여러 암 치료 분야에서 혁신신약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R&D 투자 및 혁신을 바탕으로 신규 항암신약의 조속한 상용화 및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휴미라, 유럽시장 장악 나선다

삼성바이오페스, 점유율 46% 기록

삼성바이오페스가 글로벌 매출 1위 의약품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경쟁에서 지속 순항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전체 유통물량 기준으로 삼성바이오페스가 개발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임랄디'는 유럽 아달리무맙 바이오시밀러 시장 점유율은 46%로, 직전 분기에 이어 압전, 산도즈 등 경쟁사들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오리지널 제품을 포함한 전체 아달리무맙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6.6%로 직전 분기 1.6% 대비 5%포인트 상승했으며, 작년 10월 출시 후 올해 1분기까지 기록한 누적 매출은 5240만 달러(약 580억원)를 기록했다.

삼성바이오페스는 지난 해 10월 경쟁 제품 3종과 동시에 임랄디를 유럽 시장에 출시했으며, 공급 우위 및 기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출시 첫 달만에 바이오시밀



러 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출시 3년만에 누적 매출 1억 806만 달러(약 1조 2000억원)를 달성한 베네팔리는 유럽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엔브렐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삼성바이오페스는 창사 후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로 순손익이 적자를 기록해 왔으나, 유럽 지역 매출 확대에 힘입어 지난 1분기 첫 흑자(336억원)를 기록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페스 관계자는 "유럽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꾸준히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품 판매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임사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으로 김영래 한일세라믹 대표이사를, 부이사장으로 김원길 바이너리 대표이사를 각각 선임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성공을 돕는 사람들 송기운 회장,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협의회 김덕술 회장, 네이버 원운식 정책담당상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운숙 회장 등 11명의 이사로 새로 선임했다. 감사는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덕명학원 서준열 이사장이 맡는다. (왼쪽 7번째부터) 김영래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신임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원길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부이사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복지부-WHO, 첫 고위급 정책대화 개최

세계 보건정책과 상호 이해 넓혀 매년 정례적 정책대화 추진키로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4~5일 이틀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한국-WHO 간 정책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WHO는 미국,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및 빌게이츠재단, 블룸버그재단 등 기관들과 정기적으로 정책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WHO와 한국과의 정

책대화 시작은 세계 보건의료 영역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책대화에서는 WHO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GPW13(제13차 General Programme of Work)에 기반을 두고, 보편적 의료보장, 공중보건위기 등 각 주제별로 우리 정부와 WHO의 담당 관리자들이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우리 정부는 WHO 회원국 간 의약품 접근성 강화 논의에 필요한 현황 공유와 지원 필요사항도 WHO측에 요청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정책기획관은 "이번 정책 대화는 복지부뿐 아니라 외교부, 환경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세계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된 국내 부처와 기관 간 상호 이해를 넓히는 동시에, 한국과 WHO가 함께 세계 보건 의료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는 매년 정례적으로 양측의 정책대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노영학 이대목동병원 교수 대한골대사학회

최우수 논문구연상

노영학(사진) 이대목동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3일간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7차 Seoul Symposium on BoneHealth'에서 '최우수 논문구연상'을 수상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골대사학회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로 노영학 교수는 '골다공증 치료 실패에 미치는 영향 요인' 주제의 논문 발표를 통해 이번 상을 수상했다.



/이세경 기자

이대서울병원-미즈메디병원, 협력병원 협약

이대서울병원은 4일 지하 2층 대회의실에서 성삼의료재단 미즈메디병원과 협력병원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진료 협조 및 유대관계 형성을 통한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발전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력병원 협약 체결식은 편육범 이대서울병원장, 박미혜 진료부원장, 민석기 진료협력센터장 등 이대서울병원 관계자들과 장영건 미즈메디병원장, 전진동 진료부장, 박용수 기획조정실장 등 미즈메디병원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환자 이송 및 회송 체계 정착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다하며 ▲다양하고 폭



편육범 이대서울병원장(왼쪽)과 장영건 미즈메디병원장이 지난 4일 이대서울병원에서 열린 협력병원 협약 체결식에서 협약서 사인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넓은 학술교류 ▲공동 연구를 통한 의학 발전 및 향상에 기여 등의 업무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웅진코웨이, CGV서 의류청정기 체험존 운영

"영화 보는 동안 외투 케어하고 가세요~"

웅진코웨이는 이달 30일까지 CGV 용산과 여의도, 판교에서 '코웨이 의류청정기 체험존'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코웨이 의류청정기 체험존에서는 지난 5월 출시한 코웨이 의류청정기 더블케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기 전에 입고 있던 옷이나 소품물에서 구입한 옷, 집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옷을 가지고 와서 말

기면 코트룸 서비스(외투 보관 서비스)를 통해 옷의 겉과 안감에 묻은 미세 먼지를 털어주고 냄새와 주름을 제거해준다.

코웨이 의류청정기 더블케어는 가정에서 의류 케어에 필요한 ▲의류 관리 ▲의류 건조 기능과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공간 청정 ▲공간 제습 기능을 모두 갖춘 멀티 제품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웅진코웨이가 CGV에 마련한 의류청정기 체험존에서 고객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